

SOCIETY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근로자 사망사고 여전

“따순 주먹밥 씹터서 한끼”

남구, 1인 청년가구 지원

광주 남구는 고립과 은둔의 삶으로 사회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따순 주먹밥 씹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따순 주먹밥 씹터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와 대동 세상을 열고자 실시한 것으로 힘을 모아 나눠 먹었던 주먹밥에서 태동했다.

남구가 지난해 관내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 내 전체 9만5005세대 중 1인 가구는 3만7471세대 (3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청년 1인 가구는 1만121세대로, 지역 내 1인 가구의 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은둔형 외톨이·소외된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따순 주먹밥 씹터를 운영한다. 따순 주먹밥 씹터는 백운광장 인근 청년외곽과 월산동 달피커뮤니티센터, 봉선동 인애복지관 별관 3곳에 각각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휴식 공간인 만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지원금과 지방비로 충당하며, 운영 전반은 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맡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748건·1831명 희생...해빙기 등 사고 위험 커져

광주시·전남도 “안전관리체계 구축...선제적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줄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사업주와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공장과 물류창고에서도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 블록을 수송하는 50대 B씨가 몰던 대형 트럭 뒤에 서 있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에는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나

오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B업체 경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5~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러한 사법조치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건수는 1748건이며, 이로 인해 183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1건(644명 사망), 2023년 584건(598명 사망), 지난해 553건(589명 사망) 등으로 집계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의무만 잘 지켜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도 성명을 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급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각 지자체도 예방중심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도는 산하기관 근로자의 건강 보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산업보건 운영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윤용성 기자 yoi404@

전남지역 학교폭력 지난해 11% 감소

도교육청 예방교육·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성과

전남지역 학교폭력이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2023년 2717건에서 2024년 2402건으로 11.59% (315건) 감소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공약사업인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전국 최초로 제·개정해 규칙과 질서가 바로 선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전남학생교육원과 연계해 학기 초 ‘8시간 평화키움 감수성 교육’을 351학급에서 실시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맘-포지윈다’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반기법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 14일 광주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이날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N-NEXUS

N넥서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지니어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구 & 개발 통합영상처리, 지형 영상처리 솔루션, 데이터 분석
 제조 & 제작 주·원래 단위 CCTV 시스템
 E S S 시스템 산업용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인식 이미지 인체 움직임 분석
 설계 & 지원 유·무선망, 스마트시티, 영상처리, 보안·지능형영상·영상처리·영상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관리,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망, 스마트시티, 스마트 ICT 분야, ITS 설치, 영상처리, 영상처리, 영상처리

TEL 062-719-1080-2

‘산사태 피해’ 무등산생태탐방원 식생 면적 증가

사고 발생 후 3년 만에 1만2574㎡...전체 면적 70% 인공 복원 사업 효과...총장사·중심사 일원도 추진

지난 2020년 발생한 무등산국립공원 산사태 피해 현장의 식생 면적 분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간한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지 현황조사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 산사태 발생지(2023년 12월 기준)는 3개소, 면적 1만8614㎡로, 식생(식물의 집단) 면적과 나지(초목이 없는 벌거벗은 땅) 면적은 각각 1만3199㎡, 5415㎡로 확인됐다.

산사태가 발생한 3곳은 탐방로, 도로 등과 인접한 무등산생태탐방원 일원, 총장사 일원, 중심사 일원 등이다. 무등산생태탐방원은 식생 면적 증가형, 총장사와 중심사 일원은 보합형으로 분류됐다.

식생 면적 증가형은 식생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식생의 회복에 따른

회복이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보합형은 식생 면적과 나지 면적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대상지다.

특히 식생 면적 증가형으로 분류된 무등산생태탐방원의 경우 지난 2020년 산사태가 발생했으나, 식생 면적이 2022년 9846㎡, 2023년 1만2574㎡로 증가했으며, 나지 면적은 2022년 8111㎡, 2023년 5392㎡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식생 면적이 점차 넓어진 이유는 산림청 등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인공 복원 사업 때문으로 분석됐다. 무등산생태탐방원 일원에서는 단둑기, 도수로 등 공법을 적용해 인공 복원이 진행 중이며 식생 면적이 전체의 70%로 확대됐다. 복원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다.

보합형으로 분류된 총장사 인근은

산사태 발생 면적이 150㎡로 비교적 작은 것으로 확인, 시설물 도입 등의 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심사 인근에서는 골막이와 도수로 설치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복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무등산 국립공원은 식생 면적의 분포 비율이 나지 면적의 분포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는 복원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추가 붕괴 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직접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지로의 접근 가능성, 탐방로와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접근조사와 원거리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등산생태탐방원 일원은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적용성 평가를 실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교육청, 흥복학원 통학로 문제 해소한다

법인 정상화로 갈등 해결...외부 재정 기여자 검토도

광주교육청이 4개월째 등하굣길 불편을 겪고 있는 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흥복학원과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종전 이사)를 통한 학교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흥복학원 임시이사회를 통해 외부 재정 기여자를 모집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저적 정당성·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 대리인을 선정해 정상화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법인에서는 정상화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통학로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토지 소유주들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는 통학로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업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학교 인파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고, 흥복학원과 개발업체 간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에도 이점선 교육감 주재로 흥복학원 임시이사장·대광여고 교장·법인 관계자·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토지 실소유자들도 만나 협의의 중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임시이사회에서 흥복학원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통학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